

대전투데이

2026년 2월 6일 금요일 014면 사람.화제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참여자 모집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청년 농업인 영농 기반 마련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주은규)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업경영과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농지이양은

퇴직불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할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소득 인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청년 농업인 중심의 농지 이전을 통해 농업경영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참여 농업인은 계약 방

식에 따라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을 선택하면 1ha당 월 40만 원의 직불금과 함께 농지연금 및 임대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은규 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202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농업 은퇴를 고려 중인 고령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상담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